

# 金弘道筆

## 「檀園圖」

孟 仁 在

一

여기서 「檀園」이라 함은 畫員 金士能의 雅號를 뜻함과 아울러 그가 살던 草廬도 함께 指稱하게 된다. 이것은 作者가 직접 手書한 跋文에서 스스로 「檀園弊廬」라 썼고 이 그림을 가리켜 「檀園圖」라 하였으므로 알 수 있고 그러므로 「檀園」이란 呼稱으로의 對象만이 아니라 寫出할 수 있는 對象으로서의 한 「園林」이었던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作者는 跋文의 末尾에서 「檀園主人」이라 自稱하였고 이 「檀園圖」에서 그가 지냈던 住居環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從來 그의 雅號로만 불려오던 「檀園」稱의 緣由하는 바를 알 수도 있으며 그 複合指稱의 實際的 樣相을 本圖를 통해 實感하게 된다. 어떤 契機로던 間에 檀園이 직접 그 草廬를 寫出한 例는 지금까지 他に 例가 없는 것 같으며 그것이 主人의 職業畫員으로서의 日常的 畫業과는 距離가 있는 各별한 契機와 心機를 內包하였다는 點에서 檀園의 生涯를 理解하고자 하는 角度로는 重要한 資料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二

檀園圖를 寫出하게 된 動機는 跋文에 쓴 바와 같이 「檀園弊廬」를 尋訪한 滄海翁과 平素 親交가 있던 姜澹拙熙彥 三人의 雅會라 할 수 있는 「眞率會」였으며 日記를 辛丑淸和節이었다 하였으므로 正祖五年(서기 一七八一), 檀園으로는 三十六歲가 되는 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檀園圖」는 그 후 몇수로 五年(星霜五易), 檀園四十歲時, 姜澹拙은 이미 他界한 故人이 되었고 檀園은 家勢窮乏하여 「山南」의 客館에서 寄食할 즈음에 忽然히 나타난 滄海翁을 接하매 辛丑年 淸和節의 眞率會를 回想하여 한 幅을 그려 滄海先生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임을 跋文에서 알 수 있다.

檀園은 題跋앞에 滄海翁의 七言詩 兩聯을 自書하고 辛丑年淸和節의 檀園光景을 다음과 같이 썼다.

「滄海先生北登不感而窮塞垣 東自金剛訪余於檀園弊廬 時辛丑之淸和節也 日暖園林 萬化方暢 余鳴琴 姜澹拙景運佐酒 先生登壇執耳 因成眞率會」  
그림은 두터운 壯紙畫面에 左上에서 右下로의 對角을 軸으로 草廬의 사랑채와 一柱柴扉, 그리고 蓮塘이 있는 後園을 그렸으며 構成의 大局 簡明함을 보이는 동시에 濃墨主調에 淡靑彩한 蒼潤한 園林을 或前或後로 按配하였고 그 筆意는 粗放壯健함을 보인다. 대체로 無碍無托한 構成과 筆致라 볼 수 있는데 비록 實景寫出이라도 展開하려는 角度를 檀園답게 捕捉하였다 하겠으며 하나의 俯瞰式圖로서 構成의 壯健함과 아울러 深邃한 園林境을 보여준다. 中景上面의 餘白에 自書한 滄海翁의 詩와 自作 題跋文은 다음과 같으며 그 末尾에는 古松道人李寅文의 款識가 있다.

「錦城東畔歇蹇驢 三尺玄琴識面初 白雪陽春彈一曲 碧天寥廓海天虛  
檀園居士好風儀 澹拙其人偉且奇 誰教白首山南客 拍酒衝琴作許癡」

「滄海先生北登不感而窮塞垣 東自金剛訪余於檀園弊廬 時辛丑之淸和節也 日暖園林 萬化方暢 余鳴琴 姜澹拙景運佐酒 先生登壇執耳 因成眞率會 居然之頃 星霜五易 景運今作千古人 楸柏之叢已實矣 余窮不能爲家 留滯山南 寄食郵館 歲將周矣 忽遇先生於此地 鬚眉鬢髮之間 雲氣尚聚 其精力老且不衰 自言開春將向瀛州之漢峯山 甚可奇壯 五晝夜劇飲縱談 如檀園疇昔之游 悲感繼之 遂作一幅檀園圖以奉先生 圖即其時光景而上面兩絕詩即先生當日漫詠也 甲辰十二月立春後二日 檀園主人金士能畫」 「古松流水觀道人李文郁觀」



金弘道筆「檀園圖」

畫面을 다시 살펴 보면 構成의 全體的 印象은 斜切 對角類로 複合된 西園雅集圖屏(八曲)과 通함을 알 수 있고 雅集圖의 右半部와 같은 짜임으로 考慮한 듯이 보인다. 그것은 垣牆의 斜切設定과 아마도 東門일 草蓋柴扉의 設置와 垣內의 翠屏이라 할 自然岩의 向背, 布置法이 넓은 뜻에서 若干의 類似點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檀園草廬는 이 그림으로 생 각하면 아마도 四面의 切半인 北·西二面이 山岩으로 둘러싸이고 東·南二面은 純全한 돌각담으로 둘러쳐진 東門, 南向집이 있던 것 같다. 西園에서는 雅集人物의 한 中間 位置쯤에 草廬가 定位하고 사방방 끝에 붙은 한 間의 들마루에서 眞率會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後園의 草堂이라 하면 그 앞에 보이지 않은 기와집이라도 있었을런지 모른다. 檀園의 淸白으로 一貫한듯한 生涯로 짐작하면 그것은 妄想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는 그가 自稱한 「檀園」으로서 작으나 方正 조출한 蓮塘과 土人趣味의 怪石, 鶴子, 그리고 岩下의 石床, 奧部의 石壇, 이런 것이 草廬를 둘러 있고 草廬前後에 鬱鬱한 柏林이 들어섰으며 堂前에는 楸一株가 淸雅하게 버려 있어 鳳凰이라도 날아들듯한 景概이다. 또 奧部 岩峽 間에는 層段을 이룬 城堞이 있어 後園背景의 壯重·深邃함을 보인다. 城廓을 最奧景으로 한 이러한 山岩景은 當時의 서울 都城內外邊에는 많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檀園」의 位置는 水岩의 景이 殊勝한 城下의 어느 곳이었고 한 수 있으며 여기서 分外의 想像을 한다면 城內의 仁王幽谷이거나 觀象監附近의 城外, 白岳南麓, 三清洞附近中の 어느 곳이 아니었을까 한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의 生活은 그 聲名에 反하여 朝夕을 온전히 잊지 못하였다고 傳한다. 그의 집도 題跋에 보듯이 「日暖園林 萬化方暢」였던 園林爲主의 다만 草家三間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東自金剛訪余於檀園弊廬」라 한 것으로는 草家以上の 것을 想像하기는 어려울런지 모르겠으며 壺山外史에 傳하는 「家貧或食不繼」하였다는 記錄을 뒷받침하는 自叙跋文이 이 그림에서 眞實되게 表現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辛丑年 三十六歲時의 「檀園弊廬」가 五年後인 甲辰年 四十歲時에는 弊落이 더욱 深化하여 「余窮不能爲家 留滯山南 寄食郵館」하였다니 弊廬로 조차 꾸려나가지 못하고 山南(?)의 驛院客舍에서 寄食하는 處地가 되었던 모

양이다. 그리고 거기서 「歲將周矣」, 「甲辰十二月 立春後二日」, 將次甲辰年을 넘기려 한다 하였으므로 五年을 넘겨 弊廬를 떠나 있으며 六年째에도 檀園弊廬의 窮乏은 풀릴 조짐이 안보였던 것 같다. 五年前 「檀園弊廬」에서 아마도 切親했던 姜澹拙과 滄海翁을 맞이했을 때 「日暖園林萬化方暢 余鳴琴 姜澹拙佐酒 先生登壇執耳 因成眞率會」하였다 하였으므로 金士能의 거문고를 타고, 姜澹拙은 술 대작을 滄海翁은 詩詠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風流는 壺山外史가 傳하는 梅花飲으로도 겨 行해졌으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圖書가 傳하는 바 風度가 아름답고 磊落不羈하여 世人이 神仙中の 사람 같다고 한 것이라든가 性品이 梅花飲에서 처럼 踈曠하여 日日生計에 執着하지 않았던 것 같으며 郵館에서 寄食하고 있을 만큼 踈曠奔放했었음으로 살림에는 항상 窮乏했던 모양이다. 家率에 관하여도 郵館寄食과 관련하여 매우 中庸한 바이나 推論할만한 資料가 없는 것 같다. 그림에 나타난 園林의 꾸밈새로도 金士能의 素履과 眼目, 實生活의 一面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인 바 적어도 이 그림의 叙事的 表現에 關한 限 구멍이 없는 眞實임을 누가 疑心하라.

畫面의 核心인 草堂에는 內後로 偏하여 前出 三土가 坐定했으며 문중 방에 등을 대어 거문고를 타는 이가 檀園主人, 그 옆에 뒤로 비스듬히 앉아 團扇을 든 大人이 姜澹拙, 맨앞에 右手를 들어 詩詠을 하는 黑鬚老人이 滄海翁이며 그 앞에 注子, 坏, 紙卷과 筆墨硯이 排列되어 있고 마무리에 한 童子가 侍立해 있다. 奧部는 방이고 분합이 열려 있는 방안에 는 書卓과 孔雀竊리를 꽂은 白磁瓶이 놓이고 壁에는 琵琶가 비스듬히 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짐작하면 檀園은 그림·글씨에 뿐 아니라 女琴·琵琶에도 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音樂의 인 霧圍氣와 後園의 存在는 檀園의 生涯를 考察함에 있어 後面的 要素로서 貴重히 考慮되어야 할 點일 것이다.

三

지금까지 傳하는 檀園의 風俗畫는 公式의 儀禮의 인 平生圖屏 따위를 除外하면 純粹한 風俗이나 寫景風俗畫는 대개가 畫帖類의 小幅이라 하겠고 그것도 特定事實과 聯關있는 特定人의 寫出은 거의 없는 것 같다.



金弘道筆「檀園圖」的一部分

